

차례

1. 설의 ... 4
 2. 반어 ... 10
 3. 역설 ... 14
 4. 아이러니 ... 23
 5. 심상과 이미지 ... 28
 6. 공감각 ... 31
 7. 비유 ... 36 (+직유, +의인, +활유)
 8. 상징 ... 44
 9. 대구 ... 47
 10. 대조 대비 ... 49
 11. (각종) 반복 ... 56
 12. 수미상관 ... 64
- . 대화 ... 69
 - . 독백
 - . 서술자의 개입
 - . 요약적 진술
 - . 어조 및 어투
 - . 알레고리
 - . 액자식 구성
 - . 시간의 흐름
 - . 공간의 이동
 - . 시선의 이동
 - . 장면의 전환
 - . 장면의 극대화
 - . (내적) 갈등
 - . 거리감
 - . 친밀감
 - . 소외감
 - . 성찰과 반성
 - . 고뇌, 번뇌, 번민
 - . 미련

1 #설의 設疑 (베풀 設 의심할 疑)

설의법이 평가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단 한 차례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설의법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설의적(인) 표현'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있다. 설의적 표현은 매우 확실한 생각이나 감정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수사(꾸밈)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도적 질문하기의 방식은 질문의 답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을 강조할 수 있다. 실제 기출 사례를 통해 설의적 표현의 예시와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CASE 1 - YES/NO 판정의문문 형식 (=반어의문문, 수사의문문)

卍 만흥(漫興) 윤선도

산수간(산수간)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똥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을 일이 없어라

- * 하암: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렬: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뚫더라: 약았더라.

출처: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㉔ ㉔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O)

ㄹ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 세상에 옥당(출세의 공간)으로 간 이들이 있어도 전혀 부럽지 않다.

출처: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㉓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

ㄹ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냐

→ 하물며 (술을 구하기 어려운) 교외인 이곳에서는 술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취할 뜻이 없다.

ㄹ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랴

→ 이제야 팔려고 한들 (내가 팔려는 의중을) 알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도 사러오지 않을 것이다.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7번

㉔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O)

ㄹ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 너는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을 충분히 알 것이다.

출처: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㉑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O)

㉮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야 다를쏘냐.

→ 물아일체(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을 느끼는 바가 서로 같다.

㉮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 이 몸이 이 맑은 흥을 가지니 권력 있는 제후도 부럽지 않다.

출처: 2011학년도 수능 27번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O)

㉮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을 탓하기보다는 우선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O)

→ 학생들을 탓하기보다는 우선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출처: 2014학년도 예비시행A 8번

<조건> ○ ‘현상’과 ‘문제의식’을 반영할 것.

○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설의법을 사용할 것.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결코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출처: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A 31번

② ㉮ :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O)

㉮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의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O)

㉮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랴

→ 경치도 좋거니와 먹고 사는 일이라 해도 괴롭지 않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O)

CASE 2 - 설명의문문 형식

ㄷ 상춘곡(賞春曲) 정극인

송간(松澗)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출처: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㉓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

ㄷ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 어둠이 오는 것이 무척 두려울 것이다.

ㄷ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
는 걸

→ 너희들은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출처: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㉑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O)

ㄷ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 꽃을 떨어뜨리는 사나운 바람이 불어 어느 가지에도 의지하기 어렵다.

출처: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번

㉔ [C]의 증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ㄹ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 지난날의 꿈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출처: 2015학년도 수능A 44번

㉔ ㉕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O)

※주의※ 의문형 진술/표현 ≠ 설의적 표현

또한 설의적 표현과 유사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의문형 표현이 있다. 이러한 의문형 표현은 화자가 해당 질문에 대해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화자의 정서를 강화한다. 설의적 표현과의 결정적 차이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사리 떠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화자도 모르고, 당연히 청자도 모른다.)

ㄹ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출처: 2002학년도 수능 16번

㉠ (나), (다)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O)

▶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꼬?’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4번

㉡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내 남편을 빼아가시다니, 대체 왜 그러셨을까?’ 화자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설의적 표현이 아니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꼬?’ 역시 말하는 이의 앞날을 누구도 알지 못하므로 설의적 표현은 아니다.

2 #반어 反語 (돌이킬 反 말솜 語)

반어적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문맥만 잘 파악했다면 판단하기가 매우 쉽다. 반어 및 반어법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반어 : 『언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못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아이러니.

반어법 : 『문학』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풍자나 위트, 역설 따위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색하다는 뜻으로 쓴 '참 푸지게도 준다!' 따위이다.

▮ 흐르는 북 최일남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폐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울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췌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복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번

④ ㉔ :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0)

→ 문맥을 잘 파악해보면, '기특하구나.'가 '하... 이것 봐라?'임을 알 수 있다. 즉 반어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ㄷ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㉞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울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갈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출처: 2005학년도 예비평가 21번

㉞ ㉞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우리는 보통 애국가는 경청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를 잘 살펴보면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강요되는 애국(사실 권력에 대한 복종)에 대한 화자의 조롱을 읽을 수 있으므로, 사실은 아무도 애국가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3 #역설 逆說 (거스를 逆 말씀 設)

문학에서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통해 삶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 등 오묘한 진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 작가들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왜 모순된 표현으로 더 어렵게 표현하려 하는가? 그것은 삶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이 납작하고 단순한 표현으로는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경험만으로도 어느 정도씩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랑은 특히나 논리적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역설: 「2」 『철학』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역변, 패러독스.

ㄹ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출처: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O)

새 김지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날으는 새여
뭉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뭉인 이 가슴

출처: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0)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깃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번

<보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해를 겪어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Ⅱ 만무방 김유정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였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였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였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들었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뺨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벨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였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풀이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들 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뺨히 보고 싶는데 빈 지계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였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옆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빗 [A] 도 다 못 가릴 모양. 예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뭇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 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눈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릇을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길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뭇 말 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계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종이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뺨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테굴테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

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께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견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맛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B]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핵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퉁스러이 내뺨고는 비틀비틀 눈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장리: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색초: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출처: 2007학년도 수능 16번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O)

Ⅱ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을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계고장,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전 처음 내본 인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십오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에유, 정이란 게 뭔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원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보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

“몰라요.”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물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눌러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예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 주마.”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멩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질적인 장면을 삽입하여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 ② ㉡: 서술 시점을 바꿔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준다.
- ③ ㉢: 책을 매개로 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 장면을 전환하여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 준다.
- ⑤ ㉤: 생각이 흘러가는 동안 행동도 함께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4 #아이러니 Irony

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언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못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반어.
- 「2」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 「3」 『문학』 역설(逆說)에 상응하여 전하려는 생각의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

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수능에서, 특히 수능 문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 바 있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번

<보기>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다.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견될 수 있다.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소설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번 제시문을 살펴보자.

ㄷ 한계령 양귀자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슬하게

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불멘소리를 해 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 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디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치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중략)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 씨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

량이 사이로 내 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붙박여 있었다.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 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돌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번

<보기>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다.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견될 수 있다.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오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 ② '몸으로 밀어 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 하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 ④ '변해' 버린 '큰오빠'와 '온전히 남아' 있는 '큰오빠'가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 ⑤ '은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자는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ㄷ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㉞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출처: 2005학년도 예비평가 18번

<보기> 이 작품이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이다. 시인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하거나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를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줌으로써,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㉞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는데, 시 전체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닐까? (O)

새 김기택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출처: 2020학년도 수능 45번

<보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㉔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0)

5 #심상 心象 image

심상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이미지, 표상.

「2」『심리』 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상.

수능에서 심상은 주로 「1」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심상과 비슷한 용어로 이미지가 있는데, 수능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상은 보통 '감각적 심상', 즉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등으로만 출제에 활용되는 데 반해, 이미지의 경우 '감각적 이미지'('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색채 이미지')뿐만 아니라 '역동적 이미지',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수평 이미지', '수직 이미지', '몸의 이미지', '대조적 이미지' 등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이미지라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1」『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심상.

「2」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이미지의 사전적 의미 중 「1」은 심상과 같은 것이지만, 「2」는 말 그대로 '느낌'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ㄱ (가) 농가(農歌) 위백규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물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는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례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나) 동창이 밝았느냐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정학유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뽕꼭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피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닫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록*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눈을 썩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 품 진 : 품앗이를 한.

* 둘러내자 : 휘감아서 걷어 내자.

* 부록 :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번

㉔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O)

ㄱ (가) 이화우 흠뿌릴 제 계량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나) 만분가(萬憤歌) 조위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觸虜)*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迴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연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침변: 베갯머리.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출처: 2007학년도 수능 52번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O)

6 #공감각 共感覺

공감각적 표현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표현을 뜻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서로 다른 감각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CASE 1 - [A감각]이 [B감각]하다

♪ 바다와 나비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출처: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O)

→ 이 구절은 자칫 복합 감각적 심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 유사한 표현인 '새파란 아이스크림이 시리다'는 '아이스크림이 새파랗다'와 '아이스크림이 시리다'로 나눌 수 있어 두 감각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평가원이 인정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해당 문장의 의미가 '새파란 이 시리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화자가 달 표면에 도착하여 달을 직접 촉각하지 않는 한, 해당 문장은 '초생달'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생달의 파란 달빛'을 감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오직 시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초생달'임에도 '시리다'라고 하여 촉각적 심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각을 촉각화했다고 볼 수 있다.

ㄱ 우포늪 악새 배한봉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악새*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험험단신
털털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악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0)

→ ㉡은 '악새 울음'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시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으로) 어떤 색깔이나 느낌으로 물들게 하다.'라는 뜻도 있으므로 '울음'이 '솔밭을 다 적시고' 있다는 표현은 청각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 '꽃불'을 '질러 놓는' 것도 '울음' 소리가 불꽃 같은 꽃빛으로 전이되는 감각의 전이를 나타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은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을 수식하는 구조로 표현된 것으로서(CASE-2) 역시나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SE 2 - [A감각]하는 [B감각]

▶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은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이라는 시각적 표현으로 '절창'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한 수식 구조는 공감각적 표현의 많은 사례에서 나타난다. '푸른 종소리', '피부에 스미는 어둠'과 같은 유명한 공감각적 표현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CASE -1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것들이다. '종소리가 푸르다', '어둠이 피부에 스미다'와 같이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서술하는 구조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O)

▶ ㉣ 가야금 곡조 따라 광한루까지. 춘향의 마음과 어우러지는 **옥빛 소리** 한 자락, 우리 연구소에서 즐겨봅시다. (O)

→ 이 구절은 '옥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수식하고 있다.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고 '옥빛'은 시각적 심상이므로 청각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수행 평가 과제로 장래의 명함을 만들고자 한다. [A]에 들어 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기>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할 것

CASE 3 - [A감각] 같은 [B감각]

▶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 이 구절은 청각적 심상인 '까마귀 울음소리'를 시각적 심상인 '검정 포대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검정 포대기'와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출처: 2019학년도 수능 34번

㉠ [A] :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O)

종합하면 공감각적 표현(감각의 전이)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각적 심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한 가지 감각적 심상이 다른 감각적 심상을 1. 서술하거나 2. 수식하거나 3. 빗대어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직접 연결되어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번져나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주의※ 시·청각적 이미지 ≠ 청각의 시각화

평가원 기출에 나타난 용어 중 '시·청각적 이미지'라는 것이 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시·청각적 이미지'는 결코 시각적이면서도 동시에 청각적인 이미지(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다. TV를 통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시청자'라고 하는데, 방송은 시각(화면) 정보와 청각(소리) 정보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일 뿐, 이들이 전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기출 사례를 통해 복합 감각적 이미지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ㄹ 면앙정가 송순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길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㊸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켜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 안저(眼底)에 별엿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산람 :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 옥해 은산 : 눈 덮인 들판과 산.

출처: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번

④ ㊸: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O)

→ '어적'은 어부의 피리소리이므로 청각적 이미지, '달'은 시각적 이미지이므로 두 가지 감각이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ㄱ 박씨전 작자미상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눈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펴펴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환우성)*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㉔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 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 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출처: 2009학년도 수능 48번

㉔ ㉔: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O)

→ '층암은 층층하여~'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비죽새는 슬피 울어~'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7 #비유 比喻 (견줄 比 깨달을 喩)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을 말한다. 수능 기출 선지에서는 주로 '비유적 표현', '비유적 진술', '~에 빗대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ㄹ 조찬(朝餐) 정지용

해스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읊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이윽한 : 시간이 지난. * 길경 : 도라지.

출처: 2015학년도 수능 A형 31번

㉔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O)

ㄹ 유충렬전 작자미상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퓌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출처: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40번

㉔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0)

ㄹ (가) 여승(女僧) 백석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늑 산(山) 깊은 금뎡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뎡으로 갔다
산(山)뎡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나) 못 위의 잠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출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㉟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O)

→ 특정한 비유법에 해당되지 않는 애매한 표현일지라도, A를 B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평가원이 인정해주고 있다.

ㄱ (가) 추일서정 김광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출처: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번

㉔ 자연물을 인공물에 **빛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ㄱ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 정 들이고 가시는 입은 가고 싶어 가나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형 32번

㉔ [B] : 이미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빛대어** 입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ㄱ 면앙정가 송순

무등산 한 활개 뒀다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놓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 쌍룡이 뒹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B]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 앉으랴 내리랴 모이랴 흠으랴
 ┌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 사정 : 모래톱. / * 노화 : 갈대.

출처: 2010학년도 수능 36번

㉠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O)

ㄷ (나)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작자미상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날지 말고 님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님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궐(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흐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그읍는 길시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출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번

㉓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O)

ㄷ (다) 조어삼매釣魚三昧 김용준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툰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쟈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 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틀리는 소식 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 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흑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鱗)로 벗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 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희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한묵 :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출처: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번

㉓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O)

ㄱ (다) 때 김광규

남녘 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㉔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O)

Ⅱ 강 서정인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 하는구나.”

“예. 접때두 일등했어요.”

아, 이걸 뽀뽀스렵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네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이 집은요, 월출리예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가난한 대학생. 덜커덩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선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뺏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 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짹짹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 짹 끼는 소리가 들려 온다. 식모의 고무신 짹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배 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학곤 여기서 다니니?”

그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다. 심지를 줄인 남뽀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따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출처: 2005학년도 예비평가 22번 ([A]에 관한 물음)

③ 사물을 **활유적**으로 표현하여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듯해. (O)

※ 도움말 ※ 문학 감상과 관련하여 수사법적 지식을 깊이 묻는 문제는 수능에 출제된 바가 없다. 비유인지 아닌지, 비유라면 사람에게 빚댄 것인지 아닌지,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 아닌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

8 #상징 象徵 (모양 象 부를 徵)

「1」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標識)·기호·물건 따위.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삼다.

사랑의 상징이었던 손수건은 눈개의 눈물받이 손수건이 되었다. <박종화, 임진왜란>

「2」 『문학』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것 따위가 있다. ≡심벌.

문학에서 비유와 상징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수능에서는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도 둘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비교적 명확히 인식되고 1:1의 대응을 이루는 것이다. 반면 상징은 보조관념만 드러날 뿐 원관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상징의 원관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多:1의 대응을 이루게 된다. 더 쉽게 말해드리면, 하나의 보조관념을 두고 그것이 연결된 원관념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상징, 보조관념이 연결된 원관념을 명확히 하나로 특정할 수 있다면 비유라고 보면 된다. 거듭 말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ㄱ (다) 또 다른 고향故郷 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출처: 200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다)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골 :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목상의 대상
방 :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어둠 :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정신적 힘의 교류
바람 :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개 : 감시, 충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靈媒)

- ① '백골'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O)
- ② '방'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히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O)
- ③ '어둠'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O)
- ④ '바람'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 ⑤ '개'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 (O)

ㄹ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출처: 2013학년도 수능 14번

㉢ ㉠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O)

ㄹ (다) 가정家庭 박목월

지상(地上)에는
아홉 켄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켄레의 신발을.

㉠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출처: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번

② ㉞: 막내둥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도움말** ※ 결국 수능 문학에서 'A는 B를 상징한다'고 하면, 'A는 B를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A는 B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면 'A는 B를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비슷한 말 중에 수능 선지에 쓰인 것으로 '표상'이 있는데, 표상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이다. 어떤 생각이 나 관념을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드러낸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번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9 #대구 對句 (대답할 對 구절 句)

대구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말한다. 그런데 어조나 어세를 기준으로 대구를 판단하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므로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수능 기출 선지를 기준으로 할 때, 대구는 문장의 구조가 유사한 어구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감감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A형 31번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 ~한 A는

α하였고

~인 B는

β하였다.

출처: 2019학년도 수능 34번

㉷ [C] :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O)

㉮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했는가, 나의 정성 부족했는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 나의 충성이 부족했는가, 나의 정성이 부족했는가.

출처: 2016학년도 수능B형 38번

㉠ ㉠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O)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A하고 α할꺼나

B하고 β할꺼나

출처: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B형 38번

㉠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O)

10 #대조 對照 (대답할 對 비출 照)

「1」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를 것을 검토함. ≒비준.

장부 대조. / 설명의 방법으로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등이 있다.

「2」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됨.

둘의 성격이 대조가 된다. / 그의 까만 얼굴과 흰 이가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위의 두 가지 의미 중 문학 선지에 등장하는 대조의 의미는 주로 「2」의 대조를 말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조를 설명하면서 대비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대비란 무엇인가? 다음의 사전 뜻풀이를 살펴보자.

#대비 (대답할 對 견줄 比)

「1」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

「2」 『미술』 회화(繪畫)에서, 어떤 요소의 특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상반되는 형태·색채·톤(tone)을 나란히 배치하는 일.

「3」 『심리』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 빛깔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감각, 감정 따위의 심적 활동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접근하여 나타날 때에도 볼 수 있다. ≒대비 현상.

국어 영역이니만큼 문학 선지에서의 대비는 「1」의 의미로 쓰임을 추측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하면 대조는 두 대상이 서로 달라서 그 차이가 비교되어 드러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비는 대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만 알아두자. 적어도 수능 문학에서 대비와 대조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문제 풀이에 있어서나 분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ㄷ (나) 어옹漁翁 설장수

不爲浮名役役忙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生涯追逐水雲鄉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平湖春暖烟千里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古岸秋高月一航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紫陌紅塵無夢寐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綠簑青笠共行藏 초록 도롱이 푸른 삿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一聲欸乃舟中趣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那羨人間有玉堂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옥당: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 세속과 연관된 붉은 먼지와 자연과 연관된 푸른 삿갓의 대비를 통해 세속의 더러움과 자연의 깨끗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출처: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㉔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O)

ㄷ ㉔지계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 지계 위에 거적 덮어 가는 초라한 장례와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를 대조하고 있다. 가장 초라한 죽음이나 가장 화려한 죽음이나 결국은 생의 끝이라는 동일한 지점임을 강조한다.

출처: 2002학년도 수능 41번

㉔ ㉔: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해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O)

卍 (가) 성산별곡 정철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찢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엮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한기 : 책.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찢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찢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조장 : 기개 있는 품행.

* 풍입송 :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다) 신록예찬 이양하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
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
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
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
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
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
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
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
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
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
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
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출처: 2013학년도 수능 46번

㉔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O)

→ (가): 인심, 세사 ↔ 술, 거문고, 학 (나): 자연 ↔ 세속

♪ (가) 새 1 박남수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나) 어머니의 그릇 정일근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려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다) 노래와 이야기 최두석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출처: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㉔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O)

→ (가): 새, 순수 ↔ 포수, 낚, 상한 새 (나): 그릇 ↔ 그릇 (다): 노래 ↔ 이야기

11 #반복 反復 (돌이킬 反 돌아올 復)

반복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2번 이상 되풀이되면 반복이 성립되므로 선지를 판단하기도 매우 쉽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반복의 수능적 활용 양상을 확인하자.

CASE 1 - 동일한 것의 반복

ㄱ 은행나무 관재구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도롱이집: 도롱이나방의 집.

출처: 2005학년도 수능 19번

- ㉔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O)
→ 작품 전반부의 '노오란 우산깃'은 은행나무의 외양을 표현한 것이라면 작품 후반부의 '노오란 우산깃'은 우리 민족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비유됨으로써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ㄱ 시집살이요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데까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보다 더 매울까
시집 삼 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 피나고 장다리꽃이 다 피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데까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부엌문을 열어 보니 거미줄이 가득하고
솔뚜껑을 열어 보니 녹이 하나 가득하고
아궁지를 들여다보니 각시풀이 가득하고
물독을 들여다보니 쟁개비가 가득하고
열두 폭의 다홍치마 헛대 끝에 걸어 놓고
들며 나며 나며 들며 눈물 씻기 다 썩었네.

200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㉓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율격을 살리고 있다. (O)

→ ~을 ~하여 보니 ~이 가득하고 X 4

ㄱ ㉑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출처: 2006학년도 수능 18번

(나)의 ㉑~㉓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보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
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ㄱ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출처: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㉓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O)

→ 반복이 되면 정서는 무조건 심화, 강조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중략)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출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O)

→ 시구는 시의 구절을 말한다. 구절은 구와 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을 말한다. 절은 주어와 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를 말한다.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었다면, 당연히 동일한 시구가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원의 오피셜한 해설이다. 그리고 반복이 되면 강조는 자동이다.

▶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출처: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A형 31번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O)

→ 반복의 효과 중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반복되는 구절이 두 연에 걸쳐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끔 이어준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 이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기억해두자. 반복은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

※ O/X 퀴즈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O / X)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O / X)

(가) 발열發熱 정지용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증얼거리다, 나는 증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거문고 김영랑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몸돌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ㄱ (가) 폭포 김수영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잃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다) 마음의 고향 6 - 초설 이시영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담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출처: 2013학년도 수능 32번 (가~다의 공통점)

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0)

→ 어느 정도로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진짜 언어적 감각이라고밖에
는 말할 수가 없는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위 사례 중 (나)
의 사례는 '이것도 유사한 어구의 반복으로 봐야 하나?' 싶을 정도이다.

(가) : ~이 없이 떨어진다 X 반복

(나) : 흔들리~ X 반복

(다) : ~에 있지 안니하고 X 반복

ㅍ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존경하며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의 있어, 굶어서 죽게 된 사람에게 먹던 밥을 털어 주고 얼어서 병든 사람 입었던 옷 벗어주기, 늙은이의 쭈어진 짐 자청하여 져다 주고 장마 때 큰 물가에 샅안 받고 건네주기,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세간살이 지켜주고 길에 보물이 빠졌으면 지켜 섰다 입자 주기, 청산에서 백골을 보면 깊이 파고 묻어 주며 수절 과부 보쌈 하면 쫓아가서 빼어놓기, 어진 사람 모함하면 대신 나서 발명하고 애잔한 늬 황액 보면 달려들어 구원하기, 길 잃은 어린아이 저의 부모를 찾아 주고 주막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 기별하기, 계집불살(啓蟄不殺)* 방장부절(方長不折)*

출처: 2004학년도 9월 모의평가 56번

㉔ 유사한 성격의 구절들을 반복하여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O)

→ 그냥 '유사한 구절'이라고 하면 표면에 드러난 표현상의 유사성을 의미하게 되지만, '유사한 성격의 구절'이라고 했으므로 의미적으로 비슷한 구절이 되풀이되면 적절한 선택지가 된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흥부의 행동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반복이든 반복은 필연적으로 율동감, 리듬감, 운율감 등을 생성한다.

ㅍ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쥘 대로 쥘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출처: 2003학년도 수능 31번

㉕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O)

→ 유사한 구조라... 유사하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두고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유사한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이 없어도 '유사한 구조를 통해~'라고 되어 있으면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에서 '땀은 듣는 대로~'와 '별은 쥘 대로~'는 유사한 구조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디서 길 가는~'과 '어디서 우배 초적이~' 두 문장도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출처: 2016학년도 수능B형 38번

㉠ ㉠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O)

→ '나의 ~ 부족던가' X 반복

※ 도움말 ※ 종합하면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히, 100%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일부 변형이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함을 묻는 단위가 시구인지 시행인지(한 줄)를 주의하여 성급하고 허무한 오판을 내리는 일은 피해야 하겠다. 또한 유사한 어구가 반복되고 있는 제시문에서 '동일한 어구가 반복된다'는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과한 걱정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어두자.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평가원 문항의 특징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11 #수미상관 首尾相關

(머리 首 꼬리 尾 서로 相 빗장 關)

시행의 반복이 작품의 처음과 끝에 나란히 나타나면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 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미상관, 수미상응이라는 용어는 수능에 출제된 바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 오히려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등과 같이 수험생이 판단하기 쉽도록 더 풀어서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ㄹ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 고고孤高 김종길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가, 나의 공통점)

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

→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구가 작품의 초입과 말미에 반복되고 있다. 수미상관도 유사한 것의 반복이므로 강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㉕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촉개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출처: 2014학년도 예비시행A형 40번

㉖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O)

→ '어느 날 당신과 내가 ~'가 처음과 끝에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마무리하면 작품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

ㄱ (가) 와사등 김광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나) 사령死靈 김수영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출처: 2008학년도 수능 14번 (가~나의 공통점)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O)

ㄱ (가) 마음의 태양 조지훈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출처: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㉔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